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1독서 : 집회 3, 3-7. 14-17ㄱ
제2독서 : 골로 3, 12-21
복 음 : 마태 2, 13-15. 19-23

숲정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골로 3, 15)

강 론

함께 기도하는 성가정

김원중 신부/사목국 부국장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며 중심이 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바로 가족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정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가족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밥상을 중심으로 부모와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족과 상의하면서 풀어나가는 가정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부모와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녀의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자녀들은 친구들과 지내다 늦게 들어옵니다. '너 뭐하다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니?' '웬 참견이야?' '너, 이것 좀 해!' '엄마는 왜 나만 못살게 굴어.'

세번째 유형은 대화도 별로 없는,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빠는 신문을 펴들고 계시고, 엄마는 TV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밥 먹고 공부해라.' '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유형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감싸주는 보금자리입니까? 고백성사 때 고백을 듣다보면, 특별히 고백을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신가요?' 극소수의 가족만이 함께 기도할 뿐이고, 대부분의 가정은 함께 기도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배려를 하십니까? TV의 일일 연속극에만 눈높이를 맞추지 맙시다. 기도서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에 가족들의 눈높이를 맞춥시다.

소 리

사람의 권리(人權)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가장이 있고, 집안 일을 책임지는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격과 개성을 가지며, 서로 평등을 추구할 권리와 가정을 위하여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장인 아버지는 때때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부인과 자녀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문화와 관습에 얽매여,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가정은 기초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람의 권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그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가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찾는 교육이 진행되어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부부 관계,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 자식 관계는 때때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가족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인 입장에서 대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비로소 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우리의 행동들이, 자칫 내 가족과 직장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또 한 해가 지나간다. 나 때문에 피해를 본 분이 없을까 생각해 본다. [태]

숲정이 산책

"부모와 교사는 똑같다"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신앙인들이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의 전망 안에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도록 하고자 하는 대희년 준비의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듣고 그분께 발걸음을 돌리려는 이 해에 "사랑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전갈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다. 친척 엘리사벳이 연로한 몸으로 아이를 가진지 여섯 달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급히 유다 산골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헤로데의 잔인한 학살을 피하여 이집트로 떠나는 데는 망설임의 여지가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오시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오죽 당황하셨을까. 삼일동안 찾아 헤매신 것은 당연하다. 만일 사랑이 없었더라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잔칫집에 술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아드님을 거슬러서까지 포도주를 청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드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밑에서 아드님의 시체를 받아 안으실 수 있었을 것이며,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열중하실 수 있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결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응답할 수 있으셨던 마리아, 그래서 「제삼천년기」에서 교황성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한 총애를 받으시는 딸,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신앙인들의 눈앞에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완전한 모범으로 드러나신다. 성모의 노래(Magnificat)에서 마리아 스스로 말씀하시듯, 전능하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마리아에게 큰일을 하셨다(루가 1, 49참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구세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명,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의 어머니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셨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루가 1,38). 나자렛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의 십자가 발치에 이르기까지 그지없이 강렬하게 사셨던 그분의 모성은 이 해에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애정어린 간곡한 권유를 하신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참조)"(54항).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응답하여 구세주를 우리에게 낳아주신 마리아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저 희의 궁극 목적인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뽑으신 지순한 사랑의 표상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꺼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게 해 주소서"(성부의 해를 위한 교황성하의 기도 中).

기쁨과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4일 남았습니다.

♥ 세계인권 운동단체 앰네스티회원 및 후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금은 고문 및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보호운동에 사용됩니다. 지부 사무실(053)426-2533, 배영근 신부(0652)285-0041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면세)
디지틀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하얀 꿈의 동산
금구 K-랜드 눈썰매 대축제
□ 도내유일의 겨울철전용의 안전한슬로프경사면
□ 쾌적한 편의시설
□ 철저한 안전관리(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 각종조류 사육장 견학 - 자연학습 효과기대
윤병순(요셉), 김혜경(레지나)
금구 목우촌 건너편
☎ (0658)542-0365/544-2862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 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등동 성당 옆
☎ 한의원 (0653) 852-4666
약 국 (0653) 841-7217

궁금해요

시내에 나가보면 곳곳에 '크리스마스' 라고 써있고, 또 엑스마스(X-mas)라고도 써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의 성탄' 을 영어로 크리스마스(Christmas)라고 하는데, 이 말은 Christ(예수)와 Mass(미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예수의 미사'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X-mass라고 쓰는 것은 희랍어의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글자인 X('키로' 라고 읽습니다)에다 영어의 mass를 따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을 때 "엑스마스"라고 읽지 않고 '크리스마스' 라고 읽어야 합니다.

사실 성탄 대축일이 사도시대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세기까지는 성탄 축일을 지낸 일이 없고, 그리스도교가 312년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336년부터 성탄 축일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관습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세기초에 이 날을 예수 성탄 대축일로 정식 선포한 것입니다.

몇몇 동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아닌, 1월 6일을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수의 세례 등을 공동으로 기념하여 '주의 공현 대축일' 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1. 부제품대상자 피정 : 1월 1일~1월 31일, 여주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2. 교구신년하례식 : 1월 2일(토), 오전 10시 30분, 윤호관
3. 제22차 선택주말 : 1월 8일(금)~10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 ① 대상 - 미혼 젊은이
   - ② 회비 - 5,000원(당일)
   - ③ 접수 - (0652)285-3637, 0041(청소년 교육국)
4. 교구사제양성후원회원미사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교구사제 양성후원회원들과 후원회 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월례미사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사에 참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미사후에는 간단한 다과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후원회원이 아닌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여혁구 신부 주소변경 : Fr. Augustine H.K.YEO
   920 TERRACE RD. PETERBOROUGH
   ONTARIO K9J 1J5
   CANADA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음)

원 아 모 집

대상 : 1세부터~취학전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 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 어린이집
전화 : (0652) 244-7045

무주구천동 별장콘도

스위스식풍경 40평형 단독별장
방 3, 욕실 2, 거실대형, 주방
장 성 래(레오나르도)
무주리조트 건너편
☎ (0657) 322-1241, 4081

김 제 치 과 의 원

송 기 삼(골롬바노)
김 성 자(골 롬 바)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 (0658) 544-2875~6
FAX (0658) 544-2876

김제원광한의원

한의학박사 이순호(루치아노)
정연숙(루 치 아)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 앞
☎ (0658) 547-3260
546-3200

죽림리조트 유황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 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노 송 분 재

(소양초등학교 뒤)
소나무명품 다수
단풍나무·과실수
잡목 다수 확보
노 종 무(안토니오)
☎ (0652) 244-7045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길!

1. 모임 : ① 전례부, 테니스회 - 교중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③ 동그라미 볼링회 - 28일(월) 후 8시
④ 레지오 꾸리아 - 3일(주일) 교중미사 후
2. 본당 성탄 예술제 : 27일(주일) 후 1시 30분~5시 30분
※ 행사 후 전신자 저녁식사 제공함
3. 경로잔치 : 28일(월) 후 2시~4시, 국악한마당 잔치
4. 구역미사 : 29일(화) 후 7시 45분, 한강구역미사
5. 성서와 교리교실 : 30일(수) 후 7시 30분, 29절~30절
6. 병자방문 : 31일(목) 후 2시, 4시 30분은 진달래 마을 미사
7. 송년미사 : 31일(목) 후 7시, 감사 및 참회미사 봉헌
8. 신년미사 : 1일(금) 새벽 6시, 전 10시 미사 봉헌함
9. 성탄 봉헌 : 가정성서 모임 수첩과 함께 가요 우리카드 봉헌요망
10. 사랑의 헌금함 : 어려운 이웃돕기 구유헌금을 하시기 바람.
11. 감사 : 성탄행사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 봉헌의식 운동 : 주일헌금은 더 내시고, 교무금은 월납 바랍니다.
13. 특별헌금 : 금주 봉헌자 2명, 15만
14. 금주 전례 : 해설 - 이점열, 독서 - 김태영(비오)부부
봉헌 - 전칠표(스테파노)가정

☐ 지난주 봉헌금 : 2,004,080원 ☐ 교무금 : 9,698,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 무 실 2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274-9260 수 녀 원 2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새해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 밀린 교무금과 부지헌금을 정리합시다.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방주회 - 공식미사 후
② 청년공동체 - 저녁미사 후, 4회의실
2. 주간 모임 : 엠마우스회 - 30일(수) 후 7시, 1회의실
3.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 차주 -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4. 축! 혼인 재신식 : 오늘(27일) 공식미사 중
5. 송년 미사 : 31일(목) 후 7시 30분
6. 신년미사(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일(금) 전 10시, 의무축일
7. 성탄행사에 수고하신 신부님, 수녀님, 성가대, 교리교사회, 재대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전입가정 환영 : 김영래(미카엘), 차미숙(아녜스)
김철수(안토니오), 박원선(세실리아), 김혜원(루피나)
강경화(소화데레사), 강은정(레지나), 김지양(율리아)
김경하(아텔리이), 김미희(아델라) 이창렬(바오로)
김현수(바르나바), 오성훈(베리뇨), 김성웅(바오로), 백만기(미카엘)
9. 독서 : (새벽) 금주 - 김정수, 서영숙, 차주 - 장수택, 백영순
(공식) 금주 - 임길무, 이순례, 차주 - 김석철, 오영순
10. 미사 안내 : 금주 - 지혜로운 어머니 Pr.
차주 - 로사리오의 모후 Pr.
11. 주차 안내 : 금주 - 모든성인의 모후 Pr., 차주 - 바다의 별 Pr.

☐ 지난주 봉헌금 : 2,567,350원 ☐ 교무금 : 12,641,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 무 실 2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281-0441 사목회장 최 공 엽

⊙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용머리 공동체!
⊙ 성탄 예술제에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금주 모임 : 요셉회, 사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 ① 사목회 - 6일(수) 후 7시
② 테니스 - 3일(일) 후, 해성학교
③ 성모회, 성심회 - 6일(수) 미사 후
④ 성시간 및 성체조배 - 8일(금) 후 7시 30분
⑤ 환자봉성체 - 7일(목) 전 10시 ※ 신청하세요
3. 송년 미사 : 31일(목) 후 10시
4. 신년(평화의 날) 미사 : 전 10시 30분, 후 7시 30분 미사
5. 축! 혼배 : 오늘 후 1시, 신랑 - 박경환(마태오)의 장남 박철(베드로)
신부 - 최영창의 장녀 최민아(아녜스)
6. 심 루시아 수녀님 연례피정 중입니다. 많은기도 바랍니다.
7. 신축헌금 재신립 : 박용달, 조덕희, 최남, 정성종, 박찬기, 이형수
이홍승, 임철환, 서귀열 합계 - 256만, 누계 - 6,298만 ※ 감사합니다.
8. 전입 가정, 환영합니다 : 신순례(요안나), 이진숙(루시아)
정동혁(가브리엘)
9. 차주 전례 : 해설 - 오은표, 독서 - 이향랑(그라시아), 강준철(발라바)
10. 청소 봉사 : 7, 8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1,491,910원 ☐ 교무금 : 4,531,000원

우 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908,620단
⊙ 본당 전화번호부 광고모집 접수합니다.

1. 금주 모임 : ① 승리의 여왕 Cu. - 27일 전 9시
②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 - 1일(금) 전 10시 미사
2. 송년미사 : 후 7시 ※ 미사 후 전신자 단합대회 - 소성당
3. 금년도 교무금은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고,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7,610,000(19세대)
5. 미사시간 : ① 주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② 화, 목 - 전 6시, 후 7시 ③ 수, 금 - 전 6시, 10시
④ 토요일 - 어린이 - 후 3시, 중.고생 - 후 5시, 특전 - 후 7시
6. 축! 혼인 : ① 오늘 낮 12시 30분, 본당
신랑 - 정상수, 조숙례씨 차남 - 세중(미카엘)
신부 - 양정규, 오영자씨 장녀 - 정은
② 1월 3일(일) 낮 12시 30분, 본당
신랑 - 김학곤, 이갑봉씨 차남 - 진국(베네딕도)
신부 - 이길록씨 장녀 - 유진
7. 차주 : 천주의 모친 Cu., 성소후원회, 자모, 성모, 성심회, 울뜨레야
8. 금주 전례 : 해설 - 강남주, 독서 - 정진호, 김홍숙 부부
봉헌안내 - 최규화, 이존순 부부
9. 차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유제정, 박병님 부부
봉헌안내 - 임낙규, 서쌍옥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071,350원 ☐ 교무금 : 19,275,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설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교무금, 성전신축, 신립금, 바자회 티켓대금 정리 바랍니다.

1. 금주모임 : ① 구역(반)장 회의, 성모회 - 낮미사 후
② 연차 총친목회 - 후 2시
2. 예비신자 교리 : 화·수반 - 29일(화), 30일(수) 후 8시
3. 성가연습 : 29일(화) 후 8시
4. 송년미사 : 31일, 후 10시
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월 1일, 전 10시
6.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울뜨레야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 헌금 있음
7. 청소 봉사 : 2일(토) - 동정마리아 Pr.
8. 폐품 정리 : 2일(토) - 황금궁전 Pr.
9. 화단 정리 : 9일(토) - 상지의 옥좌 Pr.
10. 금주 전례 : 해설 새벽 - 곽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독서 - 이건, 유미선, 봉헌 - 최병승, 윤덕님

☐ 지난주 봉헌금 : 1,086,170원 ☐ 교무금 : 5,335,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3,071,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오늘 본당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예비신자 봉헌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예비신자 누구를 봉헌 하셨습니까?

1. 지난주 예비신자 봉헌 하신분 : 정진호(야고버) - 2명
박영애(엘리사벳) - 2명, 이유순(소피아) - 1명
오정옥(마리아) - 1명, 이정숙(로사리아) -1명
이강배(모이세) - 1명, 이현순(수산) - 1명
김중심(크리스티나) - 1명, 박수남(아가다) - 1명
※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2. 금주 모임 : ① 복음화추진위원회 - 27일(일), 10시 미사후
② 전례해설단회의 - 27일(일), 10시 미사 후
③ 꾸리아 - 30일(수) 전 10시
④ 성모기사회 - 1월 2일(토) 전 10시
3. 축! 영세 : 지난 20일 하느님의 저녁 되신 33명의 신영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4. 송년 미사 : 31일(목), 후 10시 ※ 새벽미사 없음
5. 신년 미사(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1월 1일(금) 전 10시
6.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미납된 교무금과 성소후원회비를 완납해 주시고 99년도 교무금 신립서를 금년말까지 사무실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55,630원 ☐ 교무금 : 7,991,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시다!